

(財)東亞細亞文化財研究院 地表調査報告書 第82輯

김해시 임호도시자연공원 부지내

# 文化遺蹟 地表調査 報告書

2007. 10



財團  
法人 東亞細亞文化財研究院

Foundation of East Asia Cultural Properties Institute



# 目 次

I. 조사개요.....	3
II. 조사지역 및 그 주변의 환경.....	4
1. 김해시의 자연·지리적 환경.....	4
2. 김해시의 역사적 배경.....	6
1) 김해시의 歷史 概要.....	6
2) 金海市の 역사관련 文獻자료.....	11
III. 조사내용.....	15
1. 調査地域 및 周邊의 文化財 現況.....	15
1) 내동 지식묘.....	16
2) 수로왕릉.....	16
3) 수로왕비릉.....	16
4) 봉황동 유적.....	16
5) 회현리 패총.....	17
6) 부원동 패총.....	17
7) 대성동 고분군 및 전시관 부지.....	18
8) 칠산동 패총.....	18
9) 칠산동 고분군.....	19
10) 선조 어서각.....	19
11) 농소리 패총.....	19
12) 분산성.....	19
13) 구산동 고분군.....	20
14) 김해 고읍성.....	20
15) 김해향교.....	21
2. 考古·歷史分野.....	21
1) 임호산 분묘군.....	21
2) 임호산 표본시굴조사대상지.....	22
3) 제실.....	22
4) 노거수.....	22

5) 사찰.....	22
6) 선조 어서각.....	22
3. 사회·민속, 지명유래.....	23
1) 조사대상지역 개관(김해시 내외동, 칠산서부동).....	23
2) 민속 및 文化行事, 姓氏.....	24
3) 지명유래(외동, 흥동).....	25
IV. 종합고찰 및 조사단 의견.....	27
참고문헌.....	31
도 판.....	33

## 圖 面 目 次

도면 1. 조사대상지역 및 주변유적 분포도(1/25, 000).....	1
도면 2. 조사대상지역 지형도(1/5, 000).....	2
도면 3. 조사대상지역 광역지형도(1/50, 000).....	4

## 圖 版 目 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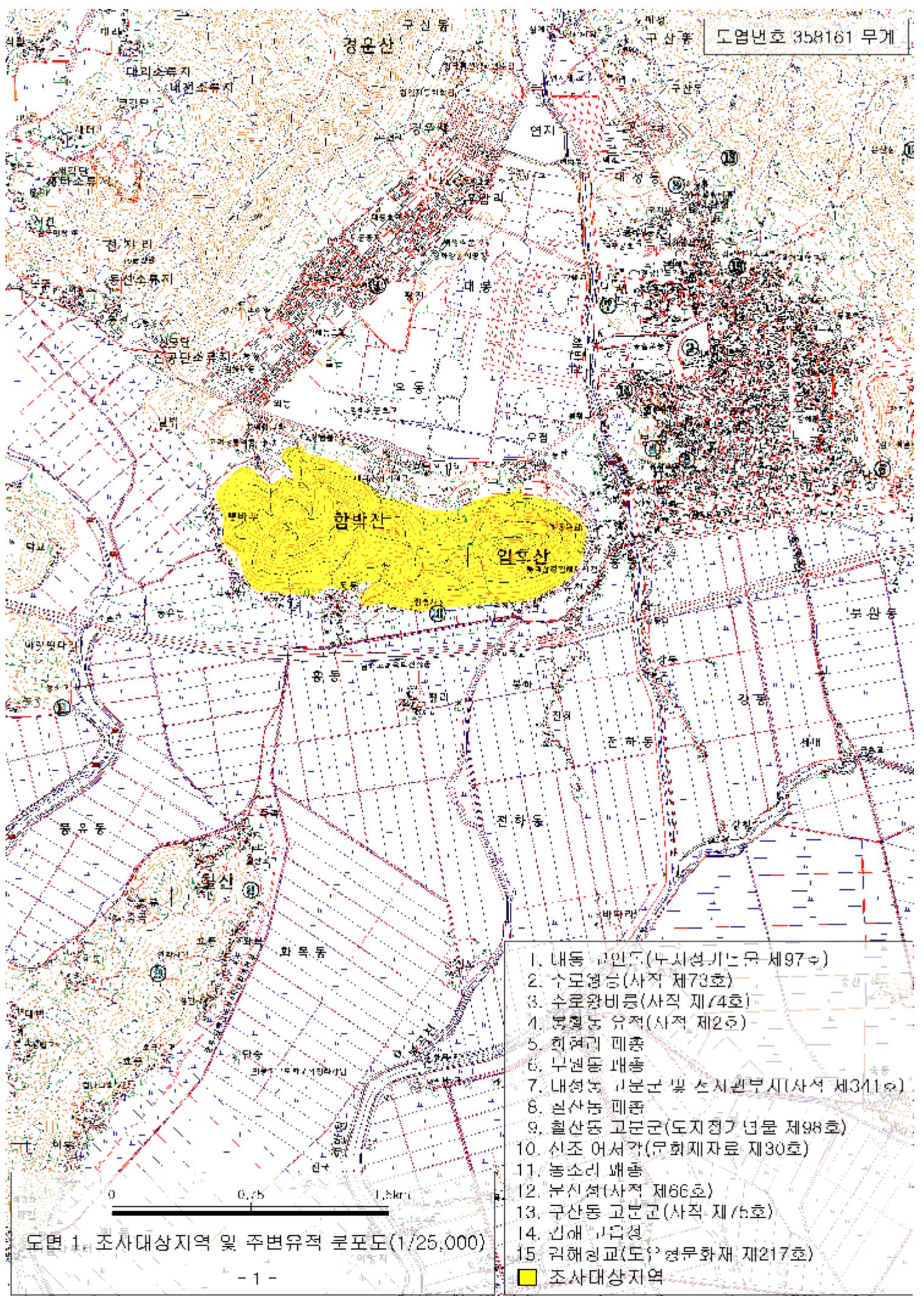
도판 1. 조사대상지역 전경(북→남).....	35
도판 2. 임호산 분묘군내 분묘2(남서→북동).....	35
도판 3. 임호산 분묘군내 분묘8(서→동).....	36
도판 4. 임호산 분묘군내 분묘16(남→북).....	36
도판 5. 임호산 분묘군내 분묘21(서→동).....	37
도판 6. 임호산 유물산포지 전경(남동→북서).....	37
도판 7. 임호산 유물산포지 내 지표수습유물.....	38

도판 8. 星州都氏 제실 전경(興本齋).....	38
도판 9. 星州都氏 제실 앞 瓦積 전경 및 세부.....	39
도판 10. 외동 보호수.....	39
도판 11. 흥부암 전경(남동→북서).....	40
도판 12. 선조 어서각 전경(남→북).....	40

## 表 目 次

표 1. 내외동, 서부칠산동 일대의 문화재 현황.....	23
표 2. 지점별 <b>GPS</b> 좌표.....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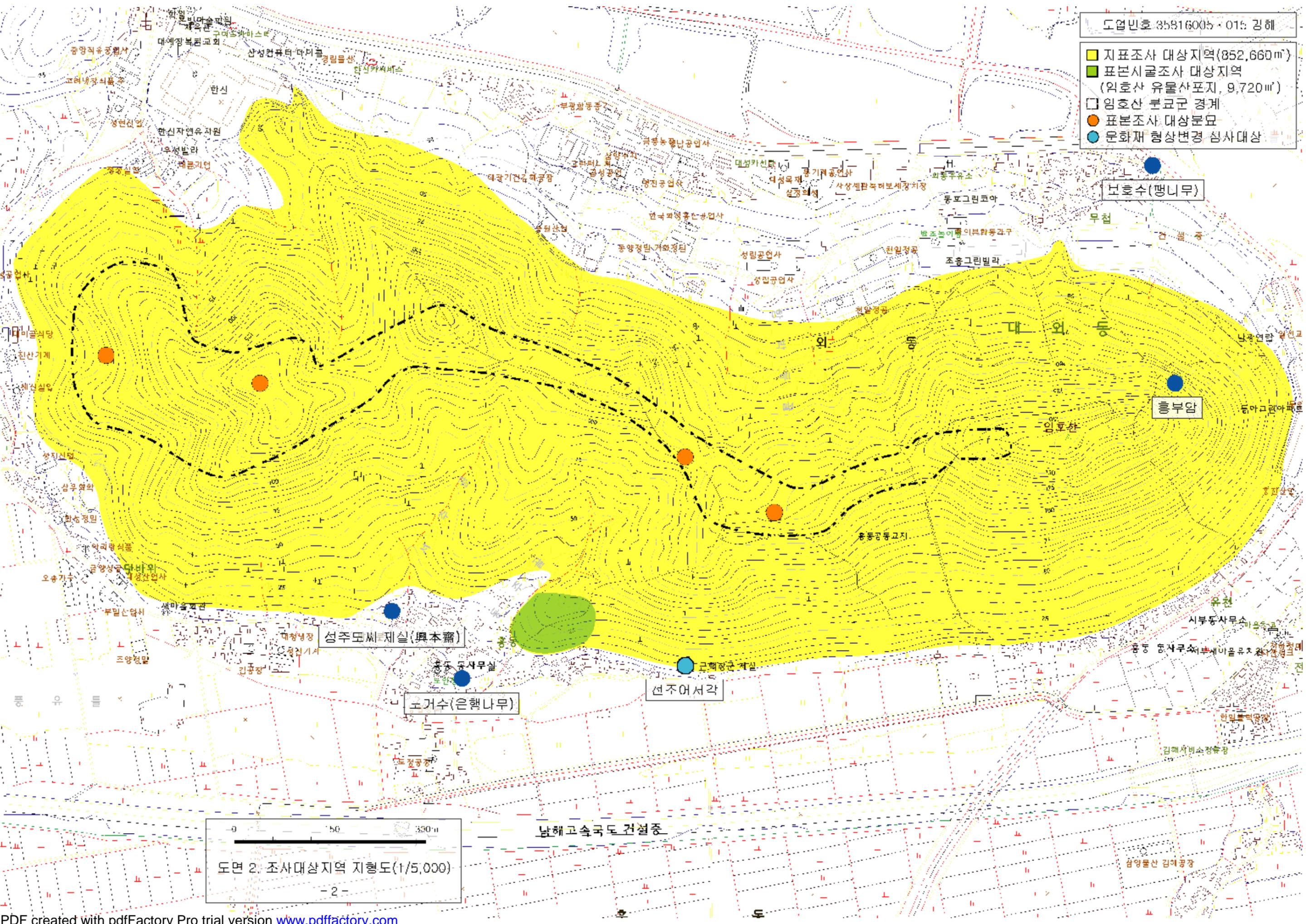


도면 1 조사대상지역 및 주변유적 분포도(1/25,000)

1. 내동 고인돌(부시성기념물 제97호)
  2. 수도영승(사적 제73호)
  3. 수로왕비릉(사적 제74호)
  4. 봉향동 유적(사적 제2호)
  5. 허여리 패총
  6. 부원동 패총
  7. 내성동 고분군 및 쓰시관부지(사적 제341호)
  8. 실산동 패총
  9. 칠산동 고분군(도지정기념물 제98호)
  10. 신조 어서각(문화재자료 제30호)
  11. 농소리 배총
  12. 부신석(사적 제66호)
  13. 구산동 고분군(사적 제75호)
  14. 김해 고인성
  15. 김해령교(도? 영분화재 제217호)
- 조사대상지역

도면번호 35816005-015 김해

- 지표조사 대상지역(852,660㎡)
- 표본시굴조사 대상지역 (임호산 유물산포지, 9,720㎡)
- 임호산 분교군 경계
- 표본조사 대상분묘
- 문화재 형상변경 심사대상



보호수(팽나무)

흥부암

성주모씨제실(興本齋)

노거수(은행나무)

선주어서각

0 50 300m  
 도면 2. 조사대상지역 지형도(1/5,000)  
 - 2 -

남해고속국도 건설중

## I. 조사개요

■ **조사명** : 김해시 임호도시자연공원 부지내 문화재 지표조사

### ■ 조사경위

우리 연구원은 경남 김해시 외동, 흥동 일원의 임호도시자연공원 부지에 대하여 문화재보호법 제72조의 2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3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 수립 시 사업대상지역 내 지표조사를 통해 문화재의 분포현황 및 매장문화재의 유존유무를 사전에 확인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보존 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현장조사는 사업대상지역 전 구간 및 주변지역까지를 대상으로 도보로 실시하였으며 현장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조사대상지역과 그 주변 일대에 대한 고문헌 및 기존에 보고된 각종 발굴조사 보고서와 학술지를 대상으로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 **조사지역 및 범위** : 경상남도 김해시 외동·흥동 일원

■ **조사면적** : 852,660m<sup>2</sup>

■ **조사기간** : 2007년 9월 1일 ~ 2007년 10월 30일

- 사전조사 15일, 현장조사 25일, 보고서 작성 20일

■ **조사의뢰기관** : 김해시청

### ■ 조사단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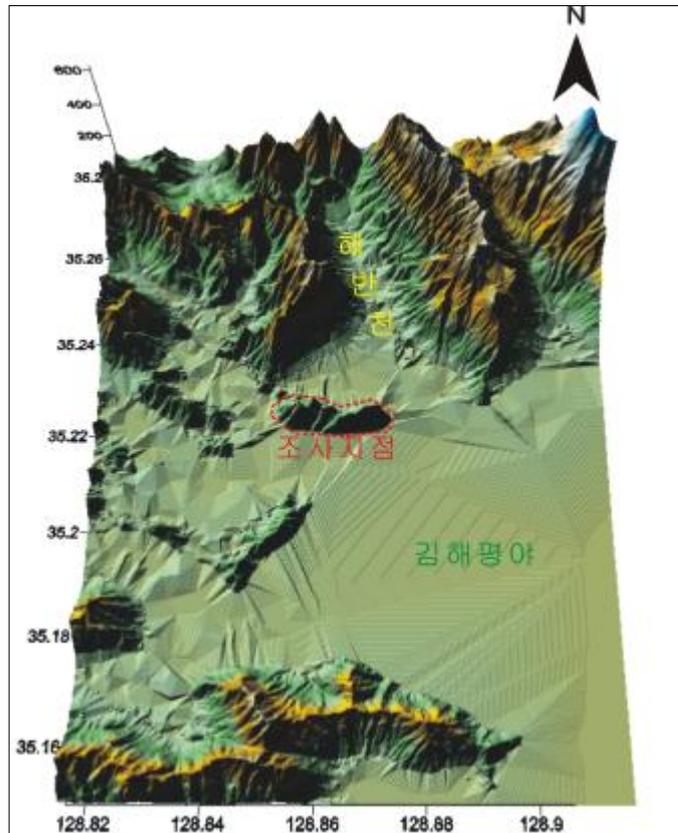
- 조사 단 장 : 신용민(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부원장)
- 책임조사원 : 정우열(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유무형부장)  
배덕환(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조사부장)
- 조 사 원 : 김관석(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전임연구원)
- 조사보조원 : 심종훈(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전임연구원)  
김묘석(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유무형부연구원)
- 보 조 원 : 김민수(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연구원)  
이상용(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연구원)

## Ⅱ. 조사지역 및 그 주변의 환경

### 1. 김해시의 자연·지리적 환경

김해시는 철기문화를 바탕으로 한 고대 가야문화의 발상지이자 한반도 불교의 최초 전래지로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곳이며 최근에 들어서는 현대 도시로서 급격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곳이다. 인접하고 있는 市·郡으로는 동쪽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및 양산시와 접하고 있으며 북쪽으로 낙동강을 경계로 밀양시, 남서쪽으로 창원시·진해시와 각각 접하고 있다.

김해시의 북부지역은 지형적으로 小白山脈에서 뻗어 내린 지맥이 洛東江에 접하여 대략 300~400m의 낮은 산악지로 형성되어 있으며, 평지가 적은 편이다. 그리고 서부지역은 龍池峯(해발 743m), 花山(해발 798m), 屈岩山(해발 662m)과 같은 높은 산지로 에워싸여 진해시·창원시·마산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남으로는 바다와 접하고 있다. 또한 낙동강이 김해시 북쪽의 無隻山(해발 700m)에서 남쪽 神魚山(해발 630m)에 이르는 산맥의 동부 지맥을 따라 흐르고 있는데, 이로 인해 소백산맥의 여러 지맥과 접하는 북부지역과는 달리 남쪽지역은 낙동강의 지류를 따라 넓고 기름진 평야지대(김해평야가 그 대표적이다)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지형구조가 예로부터 김해시를 중심으로 한 김해지역과 인근지역을 구분 짓는 자연경계가 되어 왔다. 특히 한반도 남단을 가로 지르는 낙동강은 동에서 남으로 흐르는 과정에서, 북쪽 花浦江과 密陽江의 합류지점에 비교적 넓은 沖積地帶를 형성하고 있으며, 다시 남으로 흐르다가 하구에 이르러서는 아주 넓은 三角洲平野를 발달시키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삼각주평야도 과거에는 대부분 江岸의 背後濕地 상태였으나, 근대에 이르러 자연퇴적이 증가하면서 제방축조와 매립에 의하여 지금의 넓은 김해평야 지대를 이루게 되었다고 한다.<sup>1)</sup>



도면 3. 조사대상지역 광역지형도

1) 金海市·東亞大學校博物館, 『문화유적분포지도- 김해시』, 1998.

전체적으로 보면 북쪽으로 鎭山인 神魚山(해발 630m)과 盆城山·慶雲山·林虎山 등의 산지가 동서로 뻗어 있으며, 남쪽으로는 낙동강의 하안평야가 전개되어 있는 지형이다. 또한 이 평야 주변을 낙동강과 그 지류인 潮滿江 및 海畔川 등이 흐르고 있다. 그리고 해반천의 경우 김해시의 서부에서 남쪽으로 흐르고 있으며, 조만강은 남부 신어천 북부의 농경지를 관개한다.

김해시의 이러한 지형적 특징은 이 지역의 역사적 발전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즉 김해지역에는 비옥한 삼각주 평야가 형성되어 농경에 더 없이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또한 이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생산되고 있는 대표적인 천연자원으로 ‘鐵’과 ‘天日鹽’이 풍부하였는데, 이 두 가지 자연조건이 김해지방의 대단한 장점이 되었다는 것이다.(이 중 특히 지질형태와 직접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철이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김해지역을 중심으로 생산되었던 양질의 ‘鐵’이다. 이곳은 근대에 이르기까지 철광석이 많이 생산된 지역으로, 철은 고대국가시기에 국력의 源泉이었을 정도로 중요한 자원이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철 생산에 힘입어 김해지역을 중심으로 한 고대국가인 가야가 강력한 國家權力을 형성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日本(倭)과 樂浪地域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지질학적 구조로 인하여, 경주와 김해를 포함한 낙동강 하류권에 오늘날의 자철광상 17개소가 있으며, 이 가운데 13개소가 김해일대에 분포하고 있고, 적철광상은 김해일대에만 3개소가 있다. 그러므로 총 20개의 철광상 가운데 16개, 곧 80%가 김해일대에 분포하고 있는 셈이 된다.

그리고 문헌기록에도 김해지역은 초기 가야사회부터 이미 鐵을 생산하여 각지로 수출하였고,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金海府東 甘勿也村(上東面)<sup>2)</sup>에서 철을 산출하였다고 한다. 睿宗 元年(1469)에 편찬된 『續撰慶尙道地理誌』의 <金海都護府>條에 의하면 砂鐵이 金海府東 甘勿也村에서 산출되는데, 세공으로 正鐵 479근을 얻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또한 太宗 11년(1411)에는 김해 땅에서 명나라에 조공할 금을 채집하였고, 12년 3월에는 回回沙門(아라비아의 승려) 都老가 김해에서 300근을 채집해서 조정에 헌상했다는 기록이 있다. 둘째, 천연소금(天日鹽)의 생산이다. 이 지역의 製鹽業에 대해서는 『大東輿地圖』에도 기록되어 있어, 그 역사는 상당히 오랜 것으로 보이며, 과거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소금은 낙동강을 통해 영남 내륙지역으로, 그리고 동해안을 중심으로 원거리 지역까지 널리 공급되었다고 한다. 이것이 고대에 있어 철과 함께 중요한 교역 자원이 되었으며, 이는 바로 고대 김해지역이 가지고 있는 힘과 부의 원천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김해시의 기후는 溫帶氣候地域에 속하며, 특히 남해 海洋性氣候의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에서도 온화한 지역 중 한 곳에 해당된다. 연평균 기온은 14℃로서 가장 추운 1월 평균기온은 0.9℃, 가장 더운 8월의 평균기온은 25.5℃이며 연교차는

2) 김해시 東 20리에 있었다. 조선시대까지 철 생산으로 유명하였던 곳으로 김해시 대동면 예안리와 대감리 일대로 비정되고 있다.

(田溶新, 『韓國古地名辭典』,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995).

23.3℃로 크지 않다. 또한 최저기온이 0℃ 이하인 날이 연간 60일 이하로서 제주도를 제외하면 전국적으로 가장 적은 편에 속한다. 그리고 최고기온 30℃ 이상인 날은 연간 30일 이하로 이는 타 지역과 비교해 보아도 아주 적은 편이다. 연평균 강수량은 1466.2mm로 남부지방의 연평균 강수량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며, (전국을 놓고 비교해 보면 많은 양이다) 여름에 북태평양 고기압세력과 해양성 한대 고기압세력의 영향으로 인하여 6월에는 장마전선을 형성하고, 7~8월에 집중호우를 동반한 태풍이 잦다. (강수량의 대부분이 6~8월에 많이 내리는 하계집중형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다)

교통상 위치를 살펴보면, 항공로인 김해국제공항 이외에 육상과 해상교통으로 남해 고속도로, 김해~양산간 고속도로 등 3개의 고속도로와 국도·지방도 등 교통망이 인근 부산항·마산항·신항 그리고 양산·창원·진해 등과 연계되어 있는 등 공항, 항만, 도로가 잘 갖추어져 있어 경상남도 동남부 지역 교통과 물류의 요충지이자, 동남아를 비롯한 국제적인 관문으로 자리 잡고 있다. 현재 김해시의 행정구역은 시청소재지인 부원동을 비롯한 1읍(진영읍), 7면(한림면·생림면·상동면·진례면·주촌면·대동면·장유면), 9동(동상동·회현동·부원동·내외동·북부동·칠산서부동·활천동·삼안동·불암동)으로 되어 있으며, 세대수는 152,154가구에 인구는 453,728명으로(2007년 4월 현재, 2006년 통계자료)<sup>3)</sup> 경상남도에서는 창원시 다음으로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부산의 배후 도시로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2. 김해시의 역사적 배경

### 1) 김해시의 歷史 概要

#### (1) 先史時代부터 統一新羅까지

선사시대 인류역사의 발전은 대부분 해당 지역의 지형과 기후 등 자연환경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즉 사람들로 하여금 집단 내지 군락을 이루고 생활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우선적으로 갖추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한반도의 동남부에 해당하는 지역들의 자연환경과 기후는 이에 잘 부합되고 있어 이른 시기부터 사람들이 생활하였던 흔적이 여러 곳에서 발견, 조사되고 있다. 특히 김해시 인근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찍부터 農耕文化의 싹이 튼 대표적인 지역으로 낙동강하구의 삼각주에 넓게 펼쳐진 평야 주위의 대지들은 先史時代의 유적 아닌 곳이 없을 정도이며 특히, 新石器時代부터 三韓時代에 이르는 각종 유적과 유물들이 도처에 산재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장유면 수가리패총·범방패총·농소리패총·봉황대패총과 예안리고분군·양동고분군·대성동고분군 등은 우리나라의 선사문

3) 김해시청 <홈페이지 통계자료> 참조.

화와 가야문화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유적들이다. 또한 일찍부터 鐵器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되고, 벼농사가 퍼지면서 김해의 문화는 급속도로 발전하여 기원전 2세기경에는 고대국가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삼한시대에는 ‘狗耶國’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등장하여 ‘駕洛國’<sup>4)</sup>으로 발전하였다.

여기에서 김해지역의 역사를 개관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야국의 건국설화를 간략하게나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듯이 가야의 건국신화는 (金)首露王의 탄강설화로 앞에서 태어난 것, 알이 내려 온 龜旨峯과 관련된 것, 그리고 허황후의 도래설이 대표적이다.

여기에서 서기 42년에 가락국이 건국되었다거나, 수로왕이 158년간 나라를 다스렸다고 하는 설화를 실제 그 시대의 歷史的 事實로 보기에 어렵다. 그러나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天孫降臨 說話, 農耕社會의 傳統과 민속의례, 즉위의례 등은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신화학과 민속학적 측면에서 볼 때 몇 가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는 신화나 설화를 통해 역사적 사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 이면에 있는 고대인들의 사상과 역사적 배경 등 보다 종합적인 검토의 필요성에 부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수로왕의 설화에서는 크게 2가지 특징을 엿 볼 수 있다. 첫째, ‘天孫降臨’과 ‘卵生說話’적 색채가 강하다는 점과 둘째, 海洋과의 밀접한 관련성을 찾아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첫째,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천강신화는 아마도 새로운 이주민 집단이 도래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수로왕을 단순히 한 개인으로 볼 것이 아니고 새로운 선진문물을 가지고 당시의 ‘김해지역’ 또는 ‘가야지역’으로 이주한 先進集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그 이전에 이미 김해지역에는 토착세력이 존재했던 것 같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9干’의 존재이다. 결국 이러한 토착세력과 새로운 수로왕이 결합하여 성립된 것이 고대 가락국이었을 것이다(9간 세력은 아마도 靑銅器文化를 기반으로 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수로왕은 선진적인 鐵器文化를 가진 집단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둘째, 해양성과의 관련은 『三國遺事』卷3, 塔像 第四 魚山佛影條에 “萬漁寺는 옛날 慈成山 또는 阿耶斯山이라고 한다. 이웃에 呵囉國[가락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 옛날 하늘에서 알이 해변으로 내려와 사람이 되어 나라를 다스렸으니 그가 수로왕이었다”<sup>5)</sup>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가락국의 지리적인 立地條件과 鐵을 매개로 한 해상교역이 빈번하였다는 점으로 볼 때, 거북(龜旨峯 설화 및 龜旨歌)으로 표현되는 해양문화 역시 수로왕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그의 왕

4) 駕洛國(加洛國) : 고대 낙동강 하류에서 일어난 나라. 일명 가라, 가야 및 6가야로 불렸다. 낙동강을 중심으로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수십 개의 부족들이 점점 작은 부족국가들을 형성하여 이른바 6가야가 되었다. 6가야는 금관가야(지금의 김해), 아라가야(지금의 함안), 고령가야(지금의 진주? 또는 지금의 경북 상주군 함창?), 대가야(지금의 고령), 성산가야(지금의 상산), 소가야(지금의 고성)를 말한다. 그 중 금관가야의 세력이 가장 커서 다른 5국의 맹주가 되었다. 금관가야는 수로 혹은 수릉이 세워 491년 동안 계속되었다.

(金泰植 『加耶聯盟史』, 一潮閣, 1993.)

5) 『三國遺事』卷三 塔像 第四 魚山佛影條 참조.

비인 허왕후 설화에서도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건국자 수로왕의 아내인 許王后 역시 하늘의 명으로 바다 건너 아유타국으로부터 왔다는 설화가 있다.<sup>6)</sup> 그런데 이 아유타국의 위치는 현재 인도 지방일 것이라는 추정 외에 정확히 비정되지 않고 있지만, 왕비가 바다를 건너 渡來하였다는 설화와 婚姻關係說話 등은 아마도 이 시기에 선진문물을 가지고 수로왕 세력과 제휴한 새로운 외래세력이 있었을 가능성을 말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7)</sup>

그리고 이와는 별개지만 가야제국으로의 발전과정에서 보여준 해상세력과의 관계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즉 고대 삼한시대에 弁辰韓을 중심으로 한 내륙지역의 농경세력과 더불어 경남지역에서 전남지역에 이르는 남해안의 해안선을 중심으로 한 해양문화 집단인 ‘浦上八國’<sup>8)</sup>의 존재는 주목할 만하다. 이는 당시의 농경세력과 해상세력의 존재를 밝혀주는 자료로써 뿐만 아니라 당시 해상세력이었던 포상팔국의 세력이 전 남해안까지 뻗었다는 기록으로 볼 때, 이 두 세력의 충돌은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반증하듯이 포상팔국과 가야와 신라의 관계에 대한 충돌의 단면도 보이고 있는데,<sup>9)</sup> 이를 통해 농경을 기반으로 한 당시의 내륙세력인 가야, 신라와의 대립과 포상팔국이 신라에 병합되어 衰落하는 과정과 시기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게 한다. 포상팔국과 가야, 신라의 대립은 신라 奈解尼師今 때의 竭火城 전투 이후로 나타나지 않는데, 이는 갈화성 전투<sup>10)</sup> 이후 경상도 일대 포상팔국의 세력이 완전히 소멸되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이상의 대립은 시기상으로 볼 때 주로 2~3세기에 많은 충돌을 야기한 것 같다)

여하튼 『三國遺事』 卷二<駕洛國記>에 의하면 서기 42년 (金)首露王이 가야를 건국하여 10대 491년을 이어오다가 신라 法興王 19년(532), 仇亥王(또는 仇衡王)이 신라에 투항(服屬)하니, 신라는 그를 예우하고 가락국을 ‘金官郡’으로 고쳐서 食邑으로 주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신라가 삼국통일 후인 文武王 20년(680)에 5京제도를 실시하면서 ‘金官小京’으로 개칭하였다가, 景德王 16년(757)에 이르러 비로소 ‘金海小京’으로 개칭하였다고 한다.<sup>11)</sup>

그런데 주목할 점은 김해지역이 신라에 예속되기 전인 3~4세기경 가락국으로서

6) 『三國遺事』 卷三 <塔像>四 金官城 婆娑石塔條 참조.

7) 김해지역에는 金首露王과 許王后에 관련된 전설과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다. 허왕후가 처음 내린 마을을 ‘主浦村’, 비단 바지를 벗었던 산등성이를 ‘綾峴’, 붉은 깃발이 들어왔던 해변을 ‘旗出邊’으로 불렀으며, 가락국의 제8대 질지왕은 452년 수로왕과 왕비가 만나 혼례를 치른 곳에 ‘王后寺’를 세워 명복을 빌었다고도 한다.

이들과 관련된 유적들로는 구산동의 구지봉 아래에 있는 수로왕릉비(사적 제74호), 김해 구산동 고분군(사적 제75호), 서상동 수로왕릉(사적 제73호), 봉황동의 봉황대(사적 제2호) 등이 있다.

8) 당시 浦上八國이란 남해안 지방, 즉 지금의 한려수도를 중심으로 여덟 개의 나라로 나뉘어져 있었던 소국가들로 이름이 밝혀진 골포국(마산만)을 비롯하여, 칠포국(진동), 고사포국(고성), 사물국(사천)의 4국과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4국을 지칭하는 것이다.

9) 『三國史記』 卷二 <新羅本紀>第二 奈解尼師今 十四年 秋七月條 참조.

10) 『三國史記』 卷四十八 <列傳>八 勿稽子傳 참조.

11) 『三國史記』 卷三十四 <雜誌>第三 地理一 金海小京條 참조.

의 역할과 영역이다. 주지하다시피 금관가야가 전기 가야연맹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으로 볼 때 그 영역을 정확하게 비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의 김해시 일대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하구와 사상구 일대를 포괄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정도로 세력이 강성했다는 점이다. 이는 당시의 산성으로 추정되고 있는 김해시 어방동 분산성, 주촌면 양동리 내삼성(歌谷山城)과 천곡리 천곡성, 부산광역시 강서구 죽림동 죽도성(馬峴山城) 등이 이 지역들에 산재하고 있기 때문이다.<sup>12)</sup> 하지만 이러한 판도는 4세기 말을 거쳐 5세기 초에 들어 큰 변화를 겪게 된다. 그것은 가야와 신라의 대립에 있어, 신라를 구원하기 위한 高句麗의 군사적 진출로 인한 타격이다.<sup>13)</sup> 당시 가야제국을 대표하던 금관가야 외에도 대가야·아라가야를 중심으로 모인 가야제국의 전쟁규모가 군사력 1만 명 수준을 넘어 신라를 강하게 압박할 정도였으며, 이에 위협을 느낀 신라는 백제를 제압하고 전성기를 맞이한 고구려의 廣開土王에게 구원을 요청하게 되었는데, 보병과 기병으로 편성된 5만 명의 고구려 원정군과 신라의 연합군에 패하여 쇠퇴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지만, 당시 동아시아의 패자였던 고구려의 강력한 군사력과 대치하여 전투를 치를 정도로까지 성장하였던 점은<sup>14)</sup>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결국 전기가야제국은 이로 말미암아 금관가야(김해)를 통한 百濟와 日本(倭) 사이의 연결이 차단되었고, 이 여파로 극심한 타격을 입은 김해의 駕洛國은 이로써 거의 멸망한 듯하다. 물론 그 중심 세력의 일부는 이 엄청난 변화를 모면해 경상남도 내륙 산간지역(대가야 지역)이나 일본 열도로 피신한 듯하다. 그렇지만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사람들은 신라의 감시 아래 세력을 펴지 못하거나 복속된 듯하다.<sup>15)</sup> 이후 김해지역은 완전히 신라의 행정구역으로 편성됨으로써 가야의 역사는 그 맥이 끊어지고 말았다.

## (2) 高麗, 朝鮮 및 近·現代

후삼국의 분열을 재통일한 고려시대 이후 조선시대까지 김해시의 행정, 명칭변화 및 陞降의 시기 등에 대해서는 『高麗史』를 비롯하여 『世宗實錄』 <地理志>에서부터 『輿地圖書』나 『慶尙道邑誌』 등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고려초기에는 왕권강화의 일환으로 전국을 12牧으로 나누어 설치하는 행정구역

12) 김태식, 『미완의 문명 7백년 가야사』, 푸른역사, 2002.

13) 서기 400년 廣開土大王이 신라의 구원 요청을 받아 들여 5만의 구원병을 출병시켜 임나가야 및 그 인근 지방을 정벌하고 군대를 주둔(巡邏兵)하였다.(『廣開土王碑文』 참조)

14) 『廣開土王碑文』十年 庚子條 참조.

15) 여기서 토기 유물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5세기 이후 고령 대가야 토기문화의 始原型式이 대성동 고분군에서 많이 출토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대성동 고분군의 축조는 5세기 초 이후에 갑자기 단절되고 있으므로, 토기문화의 유사성으로 보아 김해의 지배집단 일부가 고령지방으로 옮겨갔을 가능성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김태식, 『미완의 문명 7백년 가야사』, 푸른역사, 2002.

개편을 실시하였다.(成宗 2년, 983) 그렇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지방 豪族勢力들로 인하여 당시 중앙에서 지방을 실질적이고 조직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으며, 단지 처음으로 중앙에서 지방관을 파견하여 지방의 독자적인 호족들을 통제하였던 점에 의미를 두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은 成宗 14년(995)에 지방행정체계를 다시 ‘4都護府 10道’로 개편하였으며, 顯宗 9년(1018)에, 전국을 ‘4道護府 8牧 56州郡 28鎭’으로 나누게 됨으로써 고려의 지방제도는 완성되었는데 이때, 비로소 통일신라 때의 지방명칭과 행정체계에 대한 완전한 정비가 이루어지면서 기존의 체계와 명칭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이 과정에서 김해시의 행정개편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고려초기인 太祖 23년(940) ‘金海府’로 고쳤다가 ‘臨海縣’으로 강등되었다. 다시 ‘臨海郡’으로 승격하였으나 成宗 14년(995)에는 ‘金州 安東都護府’로 고쳤고, 顯宗 3년(1012)에 지금의 이름으로 고쳤다. 그 후 元宗 11년(1270)에 방어사 金啞이 密城에서 일어난 반란을 평정한 공과 삼별초를 막았다는 공으로 ‘金寧都護府’로 승격되었으나, 忠烈王 19년(1293)에 현으로 강등되었으며, 동왕 34년(1308) 다시 ‘金州牧’으로 승격되었고, 忠宣王 2년(1310)에 이르러 김해부로 개편되었다.<sup>16)</sup>

한편 고려말에는 왜구의 침입이 빈번하였는데, 高宗 10년(1223)~恭讓王 4년(1392)에 이르기까지 169년간 총 529회에 이를 만큼 빈번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해지역도 예외일 수 없었다. 특히 김해지역은 日本(倭)과 가장 가까운 海路의 요충지였으며, 物産 또한 풍성한 큰 고을로서 잦은 왜구의 침략과 노략질 대상이 되어 그 피해가 막심하였다. 이에 禡王때 김해부사 朴蕨은 이를 격퇴하는 한편, 김해에 邑城과 盆山城을 수축하여 왜구의 침탈로부터 방비를 강화하기도 하였다.

조선초기에 이르러 왕권강화의 일환으로 ‘道 중심체제’의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행정개편이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김해시는 먼저 太宗 13년(1413)에 ‘金海都護府’로 승격되었다. 이때서야 이곳에 鄉校가 설치되었으며, 웅천·완포를 속현으로 대산·천읍을 부곡으로 삼았다. 『世宗實錄』 <地理志> 기록을 살펴보면, 당시 김해부의 호구 수는 1,290호, 인구는 6,642명이었다.<sup>17)</sup> 그리고 文宗 2년(1452)에는 웅신현과 완포현을 ‘웅천현’으로 통합하여 현감을 두었고, 世祖 13년(1467)에 지방군제 개편으로 경상우도병마절도사 관하의 鎭管을 설치하였다. 조선중기 宣祖 25년(1592)에 壬辰倭亂이 발발하여 가락면 죽동에 상륙한 왜군 제3군과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으나 결국 김해성이 함락되어 왜군의 주둔지가 되기도 하였다(김해성 전투).<sup>18)</sup> 한편 임진왜란 이후 『金海府邑誌』의 기록에 의하면, 英祖 35년(1759) 김해도호부의 호구 수가 8,511호에 인구가 33,015명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전

16) 『高麗史』 卷五十七 <志>第十一 地理二 참조.

17) 『世宗實錄』 卷一百五十 <地理志> 金州都護府 戶口條 참조.

18) 이때 四忠士를 중심으로 백성들은 끝까지 왜군과 싸웠고, 모두 장렬히 전사하였다. 사충사는 宋賓·李大亨·金德器·柳湜 등 4명으로 후일 이들을 위해 분산성에 四忠壇을 설치하고, 高宗 8년(1871)에는 사충단비를 설치하였다.

기에 비해 사회, 경제, 호구 등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고려시대부터 조선후기에 이르기까지 인근 지역들과 통합과 분리를 거치면서 陞降을 거듭하면서도 대체적으로 ‘府’단위의 행정체계를 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조선말기부터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는 郡으로 행정개편 되었으며, 인근 지역들과 여러 차례 개편과 편입을 거치면서 현재 김해시의 틀을 갖추게 된다.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행정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말기인 高宗 32년(1895)에 ‘23府制’의 지방관제 개편으로 인하여 ‘金海郡’으로 되었다가, 이듬해인 高宗 建陽 元年(1896)에 다시 ‘道體制’가 부활되면서 이때 ‘慶尙南道 金海郡’으로 행정개편 되었으며, 光武 10년(1906)에 大山面이 창원군으로 편입되고, 양산군의 大渚面이 김해에 편입되었다. 이후 1910년 9월, 21개 면이 13개 면으로 개편되었고, 1914년 군·면 폐합에 따라 밀양군의 下南面·下東面의 일부를 병합하여 14개 면과 134개 리로 개편하여 관할하였다. 1918년 좌부면과 우부면을 병합하여 金海面을 신설하고, 1928년 4월 하계면을 進永面으로 하고, 1931년 11월 김해면을 金海邑으로 승격하였다. 1942년 진영면을 읍으로 승격, 2읍 11면이 되었다. 이후 1978년 남해고속도로가 개통되던 해에 김해군의 대저면, 명지면, 가락면의 강동지구가 현 부산광역시 北區에 편입되었고, 1981년 김해읍이 김해시로 승격되면서 김해군과 분리되어 한때 김해군의 세력이 많이 약화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1983년 2월 김해군 生林面의 금곡리와 생림리 일부가 二北面에 편입되었으며, 1987년 1월 입구면이 翰林面으로 개칭되었다. 1993년에는 낙동대교가 완공 개통되었다. 그리고 1995년 도농통합시로 金海市·郡이 통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sup>19)</sup>

## 2) 金海市の 역사관련 文獻자료

史料 『 』 年 庚子

10년 庚子(400)에 보병과 기병 5만을 보내어 신라를 구원하게 하였다. 男居城을 지나 新羅城에 이르자 왜인이 그 성안에 가득하였다. 바야흐로 (고구려) 군대가 이르자 왜적이 스스로 물러났다…(중략)…安羅人戍兵이 新羅城을 쳐서 빼앗았다……(하략).<sup>20)</sup>

史料 『 』 魏書 東夷傳 弁辰條

弁辰도 역시 12國으로 되어 있다. 또 작은 여러 別邑이 있는데(이들 모두에 는) 제각기 渠帥가 있다. (그 중에서) 세력이 가장 큰 곳은 그 우두머리를 ‘巨

19) 김해시의 面단위 행정구역명 변천관련은 『경상남도 연구』에 잘 정리되어 있다. 경남대학교 출판부, 『경상남도연구』, 1997.

20) 『廣開土王碑文』十年 庚子.  
十年 庚子 敎遣步騎五萬往救新羅 從男居城 至新羅城 倭滿其中 官軍方至 倭賊退…(중략)…安羅人戍兵 拔新羅城 口城……(하략).

智'라 하고, 그 다음에는 '險側'이라 하였으며, 다음에는 '樊濊'가 있고, 다음에는 '殺奚'가 있으며, 다음에는 '邑借'가 있다. 己柢國 不斯國…(중략)… 弁辰狗邪國·弁辰走漕馬國…(중략)… 弁韓과 辰韓은 도합 24국이 된다. 큰 나라는 4~5천 家, 작은 나라는 6~7백 家로 총 4~5만 호이다……(하략).<sup>21)</sup>

史料 3 : 『新羅本紀 第 脫解尼師今 年條』  
 脫解尼師今이 즉위하였다.(57)…(중략)…처음에 금관국 해변에 닿았다. 금관 사람은 이를 괴이하게 여겨 거두지 않았다……(하략).<sup>22)</sup>

史料 『新羅本紀 奈解尼師今 年條』  
 奈解尼師今 14년(209) 가을 7월, 바닷가의 여덟 나라가(浦上八國) 연합하여 가라를 공격하니, 가라는 신라에 왕자를 보내 구원을 요청하였다. 왕이 태자 于老와 이별찬 利音에게 명하여 6부의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이를 구원하게 하였다. (그들은) 출격하여 8국의 장군들을 죽이고, 포로 6천여명을 잡아 돌아 왔다.<sup>23)</sup>

史料 5 : 『雜志 第 地理 新羅 金海小京條』  
 김해소경은 옛날 금관국(伽落國 또는 伽耶라고도 한다)이었다. 그 나라 시조 수로왕으로부터 10대 왕인 구해왕이 梁 나라 中大通 4년, 신라 法興王 19년 (532)에 백성들을 거느리고 항복해 와서 그 지역이 금관군이 되었으며, 文武王 20년(680) 永隆 元年에는 소경이라고 하였다. 景德王이 김해경으로 개칭하였는데 지금(고려시대)의 金州이다.<sup>24)</sup>

史料 6 : 『奇異 駕洛國記』  
 (상략)…나라를 大駕洛이라 하였으며 또 伽耶國이라고도 일컫었으니, 즉 여섯 가야의 하나이다. 남은 다섯 사람은 각각 돌아가 다섯 가야의 임금이 되었다. 나라 경계는 동쪽이 黃山江이요, 서남쪽이 바다요, 서북쪽이 地理山이요, 동북쪽이 伽耶山이요, 남쪽은 나라의 끝이 되었다……(하략).<sup>25)</sup>

21) 『三國志』 <魏書> 東夷傳 弁辰條.  
 弁辰亦十二國 又有諸小別邑 各有渠帥 大者名臣智 其次有險側 次有樊濊 次有殺奚 次有邑借 有己柢國 不斯國…(중략)… 弁辰狗邪國 弁辰走漕馬國…(중략)… 弁辰韓合二十四國 大國四五千家 小國六七百家 總四五萬戶……(하략).  
 『三國志』 <魏書>의 국명이 '狗邪國'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 '耶'를 '邪'로 誤記인 것으로 여겨진다.

22) 『三國史記』 卷一 <新羅本紀>第一 脫解尼師今 一年條.  
 脫解尼師今立…(중략)…初至金官國海邊 金官人怪之 不取……(하략).

23) 『三國史記』 卷二 <新羅本紀>二 奈解尼師今 十四年條.  
 十四年秋七月 浦上八國謀侵加羅 加羅王子來請救 王命太子于老與伊伐浪利音 將六部兵往救之 擊殺八國將軍 奪所虜六千人 還之.

24) 『三國史記』 卷三十四 <雜志>第三 地理一 新羅 金海小京條.  
 金海小京 古金官國(一云伽落國 一云伽耶) 自始祖首露王至十世仇亥王 以梁中大通四年 新羅法興王十九年 率百姓來降 以其地爲金官郡 文武王二十年 永隆元年 爲小京 景德王改名金海京 今金州.

史料 7 : 『 』 卷二 奇異 駕洛國記

(상략)……가락국이 망한 후에 이 땅은 대대로 부르는 이름이 같지 않았으니, 신라의 31대 정명왕(神文王)이 즉위한 開耀원년 辛巳(681)에는 金官京이라 하여 태수를 두었다가 그 후 259년 만에 우리(高麗) 太祖에게 귀속하여 통합된 후에는 대대로 임해현이라 하고 排岸使<sup>26)</sup>를 두었던 것이 48년이요, 다음에는 임해군 혹은 金海府라고 하여 도호부를 둔 것이 27년 동안이요, 또 방어사를 둔 것이 64년 동안이다……(하략).<sup>27)</sup>

史料 8 : 『 』 卷二 塔像 金官城 婆娑石塔

금관 虎溪寺에 있는 파사석탑은 옛날 이 고을이 금관국으로 되었을 때에 시조 임금인 수로왕의 왕비, 이름을 황옥이라고 하는 허황후가 東漢(後漢) 建武 24년(48) 甲申年(戊申年임)에 서역의 아유타국으로부터 이 탑을 싣고 왔다. 처음에 공주가 양친의 명령을 받들고 바다를 건너 동쪽으로 향하여 가는데 도중에 큰 풍파(波神)를 만나 못 가게 되었으므로 돌아와 父王에게 그 연유를 사죄했더니 父王이 이 탑을 싣고 가도록 하니, 아주 편하게 건너게 되어 남쪽 해안에 와서 닿았다……(하략).<sup>28)</sup>

史料 9 : 『 』 卷三 志 第 地理

金州는 원래 駕洛國이었다…(중략)…(고려) 太祖 23년(940)에 전국의 주·부·군·현의 명칭을 개편함에 따라 金海府로 되었고 후에 강등되어 臨海縣으로 되었다가 다시 郡으로 승격되었다. 成宗 14년(995)에 金州로 고쳐 安東都護府가 되었고, 顯宗 3년(1012)에 지금의 명칭으로 고쳤다. 元宗 11년(1270)에 방어사 金叵이 密城 폭동을 진압하였고, 三別抄의 진출을 막아 내는데 공로가 있었다고 하여 金寧都護府로 승격시켰으며, 忠烈王 19년(1293)에 낮추어서 현으로 하였고, 34년에는 다시 金州牧으로 승격되었다. 忠宣王 2년(1310)에 전국의 牧이 없어짐에 따라 다시 金海府로 되었다. 首露王의 墓(서쪽에 있다)와 招賢臺(동쪽에 있다) 또 三分水(동쪽에 있는 황산강, 민간에서는 三叉水라고 부른다)가 있다. 주현에 소속된 군이 2개, 현이 3개 있다.<sup>29)</sup>

25) 『三國遺事』 卷二 <奇異>二 駕洛國記條.  
(상략)……國稱大駕洛 又稱伽耶國 卽六伽耶之一也 餘五人各歸爲五伽耶主 東以黃山江 西南以瀋海 西北以地理山 東北以伽耶山 南以爲國尾……(하략).

26) 高麗時代 海안방어를 맡았던 관직명칭이다.

27) 『三國遺事』 卷二 <奇異>二 駕洛國記條.  
(상략)……國亡之後 代代稱號不一 新羅第三十一 政明王卽位 開耀元年辛巳 號爲金官京 置太守後二百五十九年 屬我太祖統合之後 代代爲臨海縣 置排岸使 四十八年也 次爲臨海郡 或爲金海府置都護府二十七年也 又置防禦使 六十四年也……(하략).

28) 『三國遺事』 卷三 <塔像>四 金官城 婆娑石塔條.  
金官虎溪寺婆娑石塔者 昔此邑爲金官國時 世祖首露王之妃 許皇后名黃玉 以東漢建武二十四年甲申自西域阿踰陁國所載來 初公主承二親之命 泛海將指東 阻波神之怒 不克而還 白父王 父王命載茲塔乃獲利涉 來泊南涯……(하략).



라 고쳤고 世祖朝에서 鎭을 설치하였다……(하략).

[郡名] 駕洛·伽倻·金官·臨海·金州·金寧·盆城이라고도 한다.<sup>31)</sup>

**史料 『 』 金海府邑誌**

[建置沿革] 본래 (金)首露王의 가락국으로 仇亥王에 이르러 신라 법흥왕에게 항복하니 法興王이 객으로 예대하고 그 나라를 없앤 뒤 金官郡으로 불렀다. 文武王이 金官小京을 설치하였다. 고려 太宗<sup>32)</sup>은 府로 강등시켰고, 뒤에 또 臨海縣으로 강등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군으로 승격시켰다. 成宗은 金州 安東都護府로 고쳤으나, 顯宗이 防禦使로 강등하였다. 元宗 때 방어사 김훤이 밀성 반란을 평정하고 또 삼별초를 막은 공이 있다는 것으로 金寧都護府로 승격하고 훤을 발탁하여 도호로 삼아, 진수하게 하였다. 忠烈王 2년(1276) 안렴사 劉顥를 살해한 일로 현으로 강등되었다가 뒤에 다시 金州牧으로 승격시켰다. 忠宣王 2년(1310)에 여러 牧을 선별·폐지하면서, 다시 金海府로 하였다. 本朝(조선)에서는 그대로 하였다.

[郡名] 駕洛·伽倻·金州·金官·臨海·金寧·盆城이라고도 한다.<sup>33)</sup>

### Ⅲ. 조사내용

#### 1. 調查地域 및 周邊의 文化財 現況

김해시는 금관가야의 중심지로 이와 관련된 고분군 및 패총 유적 등이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김해향교 등 조선시대 유적에까지 이르고 있다. 조사대상지역은 김해시의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기한 유적에 둘러싸여 있는 지역이다. 주변에 분

31) 『新增東國輿地勝覽』 卷三十二 <金海都護府>.

[建置沿革] 本駕洛國 或稱伽倻 後改金官國 自始祖金首露王至仇亥王 凡十世四百九十一年 仇亥降于新羅 法興王 王待以客禮 以其國爲邑 號金官郡 文武王 置金官小京 景德王 改今名 仍爲小京 高麗 太祖降爲府 後又降爲臨海縣 未幾陞爲郡 成宗改金州安東都護府 顯宗降爲防禦使 元宗 以防禦使金暉平密城之亂 又拒三別抄有功 陞爲金寧都護府 擢暉爲都護以鎭之 忠烈王二年 以殺按廉使劉顥 降爲縣 後陞金州牧 忠宣王二年 汰諸牧 復爲金海府 本朝因之 太宗朝 改爲都護府 世祖朝 置鎭……(하략).

[郡名] 駕洛 伽倻 金官 臨海 金州 金寧 盆城.

32) 『高麗史』, 『世宗實錄』, 『新增東國輿地勝覽』, 『輿地圖書』, 등 여타 문헌에서는 太祖로 기록되어져 있어 『慶尙道邑誌』에 기록된 ‘太宗’은 편찬자의 誤記로 보인다.

33) 『慶尙道邑誌』 <金海都護府>.

[建置沿革] 本首露王駕洛國至仇亥王降于新羅法興王 待以客禮 國除 改號金官郡 文武王 改置金官小京 高麗太宗降爲府 後又降爲臨海縣 未幾陞爲郡 成宗改金州安東都護府 顯宗降爲防禦使 元宗以防禦使金暉平密城之亂 又拒三別抄有功 陞爲金寧都護府 忠烈王二年 以殺按廉使劉顥 降爲縣 後陞金州牧 忠宣王二年 汰諸牧 復爲金海府 本朝因之.

[郡名] 駕洛 伽倻 金州 金官 臨海 金寧 盆城.

포하고 있는 중요 유적은 아래와 같다.

### 1) 내동 지식묘(도지정기념물 제97호)

김해 회현리 패총에서 서북방향으로 약 1.7km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원래는 여러 기의 지식묘가 조성되어 있었던 것 같으나 마을과 경작지가 조성되면서 현재는 3기만 남게 되었다. 이들 중 제1호와 제2호는 도시개발로 파손되면서 1976년(1호), 1985년(2호)에 실시된 긴급조사를 거쳐 해체되었고 나머지 1기는 상석이 이동되었다.

오래 전부터 마을이 형성되어 대단위 주택지로 변모한 지역인 내동에서 발견된 내동 지식묘는 1995년 동의대에서 발굴조사한 후 상석은 현재 국립김해박물관에 이전 되어 있다. 내동 지식묘는 상석과 지식, 개석 및 하부 석곽을 갖춘 형식으로 내부 바닥에는 소형 널빤지 꼴의 할석을 깔아 시상대를 만들었다. 흥도가 1점 출토 되어 매장과 관련된 의례행위가 이루어졌음을 밝혀주고 있다.

### 2) 수로왕릉(사적 제73호)

이 능은 가락국의 시조 수로왕릉으로 전해져 오고 있다. 조선 세종 28년에 수로왕릉과 허왕후릉 봉분을 중심으로 사방 100보에 표석을 세워 수호구역으로 확대하고, 선조 13년에는 상석, 상단, 능표 등의 석물을 시설하였다. 임진왜란 때에는 도굴을 당하기도 하였으나 인조 25년에 능비를 세우고, 고종 2년에 침묘를 개축하였다.

### 3) 수로왕비릉(사적 제74호)

수로왕비는 원래 인도 아유타국의 공주로서 이름은 허황옥이다. 수로왕 7년인 서기 48년에 16세의 나이로 배를 타고 가락국에 도착하여 왕비가 되었고 서기 189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규모는 길이 18m, 폭 6m, 높이 약 5m로 현재의 능은 조선 인조 25년(1641년)에 수축되어 지금의 모습을 갖추었다. 왕비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 열 아들 중 두 아들을 어머니의 성인 허씨를 따르게 하여 김해허씨의 시조가 되었다고 한다.

### 4) 봉황동 유적(사적 제2호)

봉황동 구릉의 서쪽으로 이어지는 낮은 저지대에 유적이 위치하고 있다. 이 유적은 무문토기시대부터 조성되기 시작했지만, 중심시기는 삼한~가야시기이며, 취락지와 패총이 분포한다. 그리고 봉황대구릉의 남동쪽 끝부분에는 회현리 패총이 위치

하고 있다.

봉황동 유적중 김해시에서 시행하는 ‘가야인 생활 체험촌’ 조성부지에 대하여 2002년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삼국시대의 수혈, 지상식건물지, 다수의 주혈, 토루, 석열 등이 확인되었고, 고려~조선시대의 하천과 호안시설이 조사되었다. 호안시설은 고하천 범람 후에 조성된 것으로, 유적의 서쪽 경계부를 약간 비스듬하게 굴착하여 석열과 목주열을 이용하여 축조하였다.

## 5) 회현리 패총

이 유적은 낙동강 하류의 충적평야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높이 7m, 동서 길이 약 130m, 남북 너비 약 30m의 낮은 구릉 위에 형성된 조개더미로 남부지방 원삼국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이다. 1907년에 발견되어 1920년 1차 발굴되어 당시의 행정구역명에 따라 회현리 패총으로 명명되었다. 1992년 회현리 패총이 있는 봉황대 주변에 대해 부산대학교박물관에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 6) 부원동 패총

김해시청의 동쪽과 서쪽에 각각 위치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졌다. 부원동 패총은 김해시 동남쪽의 남산(南山)과 그 주변에 있었던 유적으로 남산 패총(南山貝塚)으로도 불리었다. 그 후 김해시의 도시확장사업의 일환으로 토지정비사업지구에 들어가게 되어 1980년 동아대학교박물관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유적은 토지정리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현재는 완전히 소멸되었다.

### (1) 부원동 패총①

남산 서쪽 기슭의 하단부에 형성되어 있었다. 자연층위는 5개층으로 나누어져 있었으며 산의 경사도를 따라 서쪽인 김해 시가지를 향해서 비스듬하게 퇴적되어 있었다. 제 I 층은 표토층, 제 II·IV 층은 순패각층, 제 III·V 층은 두터운 부식토층이었다. 각층에서는 많은 유물들이 출토되었는데, 유물의 종류는 비슷하나 특징은 층위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다. 토기, 토제품, 옥제품, 철기, 골각기, 석기, 탄화곡물(炭火穀物), 패각, 수골(獸骨)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다. 그 외 패각층 밑에서 주거지, 분묘 등 각종 유구도 발견되었다.

### (2) 부원동 패총②

부원동 패총①의 반대쪽인 남산 동쪽의 금산 기슭에 있었던 소규모 패총이다. 퇴적층이 확인되었는데 제 I ~ III 층은 교란된 것이고 밑에 있는 패각층(제 IV 층)과 부식

토층(제 V 층)만이 원래의 퇴적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부원동 패총①과는 달리 유구는 확인되지 않고 토기, 석기, 골각기, 탄화미 등의 유물만 출토되었다. 토기는 회청색과 적갈색의 두 계통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 적갈색토기가 훨씬 많았고, 경질보다는 연질에 가까운 것이 대부분이었다. 방추차, 어망추, 토옥(土玉) 등 토제품(土製品)과 철촉 등의 철기 외에 녹각제도자병(鹿角製刀子柄), 첨두기(尖頭器), 골촉, 장신구 등의 골각기가 출토되었다. 그 외 제일 아래층에서는 탄화미가 출토되었다.

### (3) 부원동 패총③

부원동 패총①·②와는 달리 유물포함층으로서 3기의 수혈주거지와 각종 유물들이 출토되었다. 주거지는 심하게 파괴되어 있었는데, 모두가 원형 수혈주거지이며 주거지 내부 서남쪽에 노지(爐址)가 있다. 유물은 토기, 방추차, 철기, 골각기, 석기, 탄화물 등이 출토되었으며 출토양상과 성격상 패총①·②와 유사하다

## 7) 대성동고분군 및 전서관부지(사적 제341호)

대성동고분군 주변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성격 및 유구의 분포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경성대학교박물관에서 1999년도에 시굴조사와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구릉동쪽 지역인 대성동 418-1번지 및 422-1번지에서 목관묘와 목곽묘, 석곽묘, 횡혈식석실묘로 이어지는 1~6세기대의 분묘가 중복 축조되어 있었다.

그리고 구릉 서쪽지역인 대성동 451-1번지 및 452-1번지 일대에서 고려시대 후기부터 조선시대에 걸쳐 조성된 기와가마 및 석열이 확인되었다.

그 후 2004년 가야의 숲 조성부지에 대해 동아문화연구원과 경남고고학연구소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동아문화연구원 조사지역에서는 삼가마와 가마 회원부, 석곽묘와 목관묘가 조사되었고, 경남고고학연구소 조사지역에서는 호안석축, 석실묘와 석곽묘 등이 조사되었다.

## 8) 칠산동 패총

### (1) 칠산동 패총①

화목동 패총의 서남쪽 약 500m 지점 서쪽 계곡의 정상부 가까운 고지에 위치한다. 유적의 중심부가 대부분 경작지로 개간되면서 파손되어 버리고 현재는 패각과 토기편들만 지표에 흩어져 있다. 주위에서 수습된 자료에 의하면 패각은 굴과 백합 껍질이 대부분이며, 토기는 회청색 경질토기와 적갈색 연질토기편들이다.

## (2) 칠산동 패총②

이 패총은 칠산 남서쪽의 남사면(南斜面) 중턱에 위치하고 있다. 주위는 경작지로 개간되고 패각(貝殼)은 모두 담수패(淡水貝)인 재첩껍질이며, 조선시대 중기의 백자편이 많이 혼입되어 있다. 아마도 조선 중기 이후에는 현재의 취락지보다는 약간 높은 칠산(七山)의 중턱에 마을이 위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추후 발굴조사가 진행된다면 조선시대의 유물들이 다소 출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 9) 칠산동 고분군(도지정기념물 제98호)

칠산 남단의 해발 90m 정도의 정상부 주변에 두 곳으로 나뉘어져 형성되어 있는데, 북쪽에는 10여기의 대형 수혈식 석곽묘군이, 남쪽에는 수십 기의 소형 수혈식 석곽묘와 목곽묘가 혼재하고 있음이 1987년 경성대학교박물관의 발굴 조사에 의해 밝혀졌다. 토기류, 철기류, 장신구류 등 많은 유물이 출토되었으며 3~4세기의 목곽묘에서 4~5세기의 석곽묘로 변화하는 가야묘제의 변천상을 잘 보여주는 유적이다.

## 10) 선조 어서각(문화재자료 제30호)

임진왜란 당시 선조가 의주에 파천하여 그곳에서 내린 교서를 김해 수성장 권탁의 후손집에서 보관해 오다가 철종 5년 김해시 흥동에 어서각이 건립되면서 이전되었다. 이 교서는 양질의 닥종이에 한글로 총 12항에 걸쳐 묵서 되어 있다.

## 11) 농소리 패총

농소리마을 동쪽 끝 지점의 양수장 부근 아스팔트 도로면에 일부 패각이 노출되어 있다. 현재는 주변의 경지정리와 도로포장으로 유적의 대부분은 파괴되고 구릉사면에만 일부 남아있다. 1964년 부산대학교박물관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여기서 출토된 유물들은 부산대학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당시 출토된 유물은 즐문토기와 무문토기, 그리고 타제석기, 골각기류이며 형성 시기는 신석기시대 후기로 추정되나 현장에서 타날문토기도 채집되어 원삼국시대의 생활유적이 존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해지방의 패총 문화를 연구하는데 있어 중요한 유적이다.

## 12) 분산성(사적 제66호)

경상남도 김해시 동쪽에 있는 해발 330m의 분성산 정상부를 에워싼 삼국시대의

석축 산성으로 둘레 약 **929m**의 성벽이 험준한 암벽을 이용하여 타원형으로 산 위의 평탄지를 감싸고 있다. 현재 성벽이 부분적으로 남아 있는 것을 보면 높이 **3~4m**이고 너비가 **2~7m**에 이르며 자연할석으로 축조되었다. 이 산성은 낙동강 하류의 넓은 평야를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는 산 위의 요충지인 분산의 정상에 있고, 남쪽으로 한층 낮아진 곳에도 약간의 토루 흔적이 남아 있어 본래는 보다 규모가 컸었다고 여겨지고 있다. 분산이라고도 불리는 이 산은 큰 수목들이 자랄 수 없는 바위로 되어 있으며, 성은 산 위의 평탄한 지형과 안부(鞍部)를 남북으로 긴 타원형으로 두르는 테피형 산성으로, **2**개의 문지와 **1**개의 암문이 남아 있다. 성벽은 부분적으로는 천연의 암벽을 그대로 이용하였는데, 특히 구 김해시에 면한 서남부는 높은 암석들이 솟아 있어서 매우 험준하다. 성내에 이르는 통로는 산성 너머에 있는 계곡을 거쳐 북쪽 후면으로 들어가는 길을 주로 이용한 것 같으나, 지금은 동남쪽으로 오르는 길이 많이 이용되기도 한다. 성벽은 산꼭대기의 평탄부로부터 약간 내려온 경사면에 축조하였으며, 수직에 가까운 석벽은 높이가 **3~4m** 가량 되는데 무너진 부분이 적지 않다. 현재의 성벽이 축조된 연대는 확실하지 않으나 정국군박공위축성사적비에 의하면 고려 말에 박위가 옛 산성에 의거하여 수축한 뒤, 임진왜란 때 허물어진 것을 **1871**년에 다시 현재의 성벽으로 개축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 산성은 성터의 선정법이 우리나라 삼국시대 산성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테피형을 따르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초축연대가 삼국시대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가락국의 중심 근거지를 이룬 산성으로 판단된다. 산성의 아래쪽 산자락에 있는 고분군들도 역시 이 시대의 유적지들이어서 이 산성의 편년을 밝히는 자료가 되고 있다. 한편 그 서편 산 아래로는 인접해서 수로왕비릉과 구지봉이 위치하며 산성의 서남쪽에는 분산 봉수대가 있었으나 허물어진 것을 최근 복원하였다.

### 13) 구산동 고분군(사적 제75호)

분성산의 서남쪽 기슭에 위치하는 고분군으로 현재 **2**기가 남아있다. 이 중 **1919**년 조사된 삼산리 **1**호분은 원형봉토를 가진 석실분으로 동서 **2.4m** 남북 **3m**의 장방형이며 연도는 남벽의 서쪽에 달려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금관가야 멸망후인 서기 **6**세기 후반경의 무덤으로, 당시 김해지역을 다스리던 지배계층의 무덤으로 추정된다.

### 14) 김해 고읍성

김해시 봉황동 **409-19**번지 일원의 김해도서관 증축부지에 해당하며 **2006**년 (재)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조사하였다. 조사범위내에서 밝혀진 김해고읍성 체성부의 길이는 약 **65m**, 초축의 기단 내·외벽간 너비는 약 **950cm**, 개축의 내·외벽간 기단 너비는 **900~950cm** 가량이다. 외벽기단 바깥의 와적부를 포함하면 너

비는 약 **1,200cm** 내외에 이른다. 토성의 잔존높이는 기저부를 포함하여 최대 **160cm**이며, 축조당시 높이를 추정한다면 약 **5~6m** 로 예상된다.

### 15) 김해향교(도유형문화재 제217호)

조선시대 관학 교육기관으로 유학을 가르치던 곳으로 현재의 중등교육기관에 해당한다. 선조 말기(**1602~1604**)에 대성전이 건립되고 인조 초기(**1625~1629**)에 동·서무가 건립된 것으로 보인다. 그 후 이 향교의 주산이 무너져 숙종 **14년(1688)** 현 위치로 이전하게 되었다. 숙종 **15년(1689)** 동·서재를, 동 **18년(1692)**에 신주를 건립하였으며 동 **19년(1693)** 명륜당과 남루를 건립하여 면모를 갖추었다. 공자를 중심으로 **5성위 18현**의 얼을 모시고 있다. 음력 **2월** 초정일과 **8월** 초정일에 이분들에 대한 제례를 대성전에서 지낸다.

## 2. 考古・歴史分野

조사대상지역은 김해시의 남서쪽에 위치하며 서쪽으로는 함박산(**167m**), 동쪽으로는 임호산(**178m**)이 연결되는 동-서로 뻗은 독립된 산줄기로서 주변에는 지식묘, 고분군, 패총 및 산성 등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 현장조사 결과, 현재까지 대부분 근·현대의 공동묘지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와 관련된 분묘 다수와 제실, 노거수 등이 조사되었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임호산 분묘군(도판 2~5)

임호산 분묘군은 임호산의 정상부에서 함박산의 중부능선인 해발 **70m** 선상까지 분포하고 있는데, 대부분 등산로 주변에 위치하며 연고묘들과 혼재하고 있다. 연고묘를 제외하면 약 **40**여기가 육안으로 식별 가능하나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분묘가 분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함박산 정상의 남서쪽에 위치하는 해발 약 **130m** 정도의 봉우리 주변으로는 다수의 분묘가 집중분포하고 있다. 이 중 일부는 등산로에 의해 봉분이 유실되어 있는 등 각 분묘들의 정확한 조성시기는 파악하기 힘들다.

따라서 연고묘의 경우 공사시행 이전에 이장공고 후 이장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무연고묘 분포지역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4기** 정도를 선정하여 먼저 표본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발굴조사 진행 및 공사시행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2) 임호산 유물산포지(도판 6~7)

임호산 표본시굴조사대상지는 임호산과 함박산 줄기의 중간지점인 남쪽 구릉 말단부에 분포한다. 현재 감나무 과수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곳으로 경질토기편 및 분청사기편 등이 지표에서 채집되었다. 자연지리적 환경과 지표채집된 유물로 보아 이 일대에 삼국~조선시대에 해당하는 생활유적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공사전에 표본시굴조사를 실시하여 문화재의 유존유무를 우선적으로 파악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 3) 제실(도판 8~9)

조사대상지역에서 조사된 齊室은 모두 근대에 지어진 곳으로 曲阜 孔氏, 星州 都氏의 것이다. 都氏 제실의 경우 이름이 ‘興本齋’이고 건물 자체는 근대에 개수되었으나 담의 기초부분에 놓여 있는 기와를 볼 때 조선후기에 해당되는 건물을 개축한 것으로 생각된다. 정면 4칸, 측면 1칸이다.

## 4) 노거수(도판 10)

노거수는 흥동 1동에 2그루, 외동 1144번지에 1그루 등 총 3그루가 확인되었다. 흥동 노거수는 마을 입구에 있는 은행나무로 건물 한 채를 사이에 두고 2그루가 위치하고 있다. 외동 노거수는 팽나무로 현재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다.

## 5) 사찰(도판 11)

임호산의 동쪽구릉 중부능선상에 허왕후의 오라비인 장유화상이 서기 48년에 창건하였다고 전해지는 흥부암이 있다. 오랫동안 폐사되어 방치되어 오던 것을 조선 순조 때 중건하였으며 1985년 화재로 전소된 것을 1989년 재건하였다.

## 6) 선조 어서각(문화재자료 제30호, 도판 12)

조사대상지역의 중앙부 남사면 말단부에 위치하고 있는 선조 어서각은 문화재자료 제30호로서 임진왜란 당시 선조가 의주에 파천하여 그곳에서 내린 교서를 김해 수성장 권탁의 후손집에서 보관해 오다 철종 5년 김해시 흥동에 어서각이 건립되면서 현재의 위치로 이전되었다. 이 교서는 양질의 닥종이에 한글로 총 12항에 걸쳐 묵서되어 있다. 선조 어서각은 문화재자료 제30호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문화재보호법 제20조에 따라 문화재 형상보존심의를 득한 후 이전 등 사업시행여부를 결정하

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 3. 사회·민속, 지명유래

#### 1) 조사대상지역 개관(김해시 내외동, 칠산서부동)

금번 조사는 ‘김해시 임호도시자연공원 부지조성’에 따른 문화재 지표조사로서 ‘김해시 외동, 흥동 일원’의 852,660㎡이다.

외동은 행정동인 内外洞 관할 하에 있으며, 흥동은 칠산서부동 관할 하에 있다.

먼저 내외동은 면적 5.34km<sup>2</sup>에, 인구는 8만 8816명(2007년 8월 현재)이다. 서쪽은 주촌면에 접해 있고, 남쪽은 함박산(167m)·임호산(178m)이 위치해 있는데 이 산줄기를 경계로 서부칠산동과 맞닿아 있다.

내외동은 1981년 金海군이 김해시로 승격되어 김해군으로부터 독립하면서 행정동으로 설치되었다. 신시가지 개발에 따라 대규모 아파트 단지조성과 유통시설이 집중되어 있다. 또한 잘 정비된 도로와 병원, 학교(초등학교 7개, 중학교4개, 고등학교 3개), 상가 등이 밀집되어 있으며 연지공원, 김해문화원, 시민스포츠센터, 김해보건복지센터 등 각종 주민복지시설과 김해 문화의 전당이 자리하고 있다.

다음으로 칠산서부동은 면적 20.05km<sup>2</sup>에, 인구는 9,758명(2007년 8월 현재)이다. 1981년 김해읍 일원이 김해시로 승격됨에 따라 칠산리와 서부리가 칠산동과 서부동으로 바뀌었다. 1997년 행정동인 칠산동·서부동을 통합하여 칠산서부동으로 하였으며 행정동인 칠산서부동은 법정동인 풍유동·명법동·이동·화목동·전하동·강동·흥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임호산 남쪽자락에 남해고속도로가 동서로 가로지르고, 남북으로 부산 강서구 강동동과 김해 부원동이 접하고 있으며 서김해 IC 진입로에 인접해 있어 주택지의 인구와 먹거리 촌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역주민의 32% 정도가 참외재배 등 농업에 종사하는 도농통합형 전원도시 형태를 갖추고 있다.

이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문화재는 다음과 같다.

[표 1] 내외동, 서부칠산동 일대의 문화재 현황

연번	명칭	소재지	시대	지정여부
1	内洞 支石墓	김해 내 469	청동기	도지정기념물 제97호
2	金海 七山洞 古墳群	김해 명법 산11-1	삼국	도지정기념물 제98호
3	宣祖御書閣	김해 흥동 산20-3	조선	문화재자료 제30호
4	七山洞 貝塚①	김해 칠산 산 18-3	원삼국	
5	七山洞 貝塚②	김해 칠산 산 18-3	원삼국	

6	明法 1洞 支石墓	김해 칠산 (명법1동)	청동기	
7	明法2洞 支石墓①	김해 칠산 (명법2동)	청동기	
8	明法2洞 支石墓②	김해 칠산 (명법2동)	청동기	
9	明法2洞 無文土器 散布地	김해 칠산 (명법2동)	청동기	
10	花木洞 貝塚	김해 칠산 (화목동)	삼국	
11	顯忠祠	김해 서부 (흥동)	조선	

## 2) 民俗 및 文化行事, 姓氏

김해시에는 다양한 민속행위와 놀이가 전해오고 있는데, 현재 전승되고 있는 것에는 지역성을 반영한 것이 많다. 이 중 무형문화재를 비롯한 제례의식과 놀이, 민요와 설화, 동제의 사례 및 문화행사를 몇 가지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sup>34)</sup>

김해지역의 대표적인 제례의식으로 구산동의 金首露王陵에서 시작되는 ‘金海 崇善殿 祭禮’(春祭·秋祭, 도무형문화재 제11호)가 있다. 매년 봄과 가을 2차례에 걸쳐서 崇善殿에서 행해지는데, 송선전은 가락국의 시조인 김수로왕과 허황후 두 분의 위패를 봉안한 곳으로, 흔히 수로왕릉전역을 의미하기도 한다. 왕릉 자체는 납능이라 하고 송선전 앞에는 송안전이라 하여 왕묘가 없는 2대에서 9대까지의 8왕과 왕비 16분의 위패를 모셔 두고 있다. 수로왕릉은 국가 사적 제73호로 지정되어 국가에서 제향을 지내고 기타 왕은 金海 金氏 문중 제사 때 같이 지내며 執禮는 따로 하고 있다.

그리고 민속가면극인 <金海五廣大>는 가락면에서 음력 정월대보름날 밤에 연희되던 탈놀이로, <東萊野遊>와 <草溪 대광대탈놀이>을 모방한 것이라고 전하는데,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동래·진주·마산의 오광대에서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김해 절궁치기 놀이>는 장유면 유하리 버등마을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김해시 일원에서 행해지고 있다.

김해지역의 세시풍속과 전승놀이 중 지역성을 잘 반영하는 특색 있는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진례면과 장유면 등지에서 전승되는 <다리 밟기>는 대보름날 남녀노소 모두 동구 밖 다리를 밟으며, 한 해 동안 다리 병과 액운이 없기를 기원하는 놀이다. 그리고 <봉선화 물들이기>는 봉선화로 손톱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놀이로, 이는 여자들의 아름다워지고 싶은 마음의 표현인 동시에 붉은 색은 잡귀를 쫓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한 지금은 산업화의 추세에 밀려 사라졌지만, 특색 있는 <꽃이먼뎡이 놀이>가 음력 8월 16일에 행해졌다고 한다. ‘꽃이 먼뎡이’(일반적인 산의 명칭으로 보인다)는 진례를 비롯한 인근 장유·주촌·진영 등지의 부녀자들이 모여 하루 종일 자유스럽게 노는 행위로, 이 날 만큼은 여자들이 자유로웠다

34) 김해시에 전승되고 있는 민속에 관한 자료는 아주 다양하다. 여기에서는 『韓國民俗大觀』(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慶南民俗資料集』(韓國文化院聯合會 慶尙南道支部, 1993), 『慶尙南道の 郷土文化(下)』(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9), <김해시청 홈페이지> 자료 등에 보고된 것들을 참고로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고 한다. 명칭은 이 날 모인 부녀자들의 옷이 산 전체를 울긋불긋하게 물들여 마치 한 폭의 그림 같다고 하여 유래되었다고 한다. <칠석놀이>는 음력 6월 하순에 집집마다 술과 안주를 준비하여 긴 장대에 기를 달고 太宗神에게 제사를 올리며, 모두 모여 음복을 하며 즐기는 놀이로 7월 10일 경이 되어야 끝난다. 또한 이 김해지역은 모래사장이 좋아 예부터 씨름이 성행하였는데, 오른팔로 상대방의 무릎을 당기는 일명 <알씨름>을 하였다. 이 외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줄다리기, 地神밧기, 농악놀이, 연날리기, 쥐불놀이, 윷놀이, 돈치기, 달맞이, 달집태우기 등 다양한 놀이들이 전승되고 있다.

이 외 여러 가지 문화행사가 벌어지고 있는데, <가락문화제>는(음력 3월 14일~17일) 김해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축제로서 가락국을 건국한 金首露王을 추모하고 지역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金海 崇善殿 祭禮’(春祭)와 같은 시기에 벌어지며, <가야세계문화축전>은(9월 말에서 10월 초) 가야문화의 발상지인 김해의 역사와 문화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 국제적인 문화관광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2005년부터 개최되어, 가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홍보를 위한 경남권의 대표축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또한 특산품인 도자기를 축제로 접목시켜 <김해 분청도자기축제>를 행하고 있다. 진례면을 중심으로 1996년부터 시작되었으며, 현재 80여 개의 업체에서 가야토기 재현을 비롯하여 다양한 종류의 도자기를 생산하고 있다. 김해지역에서 도자기가 발전하게 된 것은 태토를 쉽게 얻을 수 있었다는 장점과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도공기술이 승화된 것으로 이 축제를 통해 내실 있는 지역행사로 발전시켰다. 이 외 <진영단감축제>, <허황옥실버축제>, <연지봄축제>, <김해예술제> 등 김해시의 지역성을 반영한 특색 있는 문화행사들이 펼쳐지고 있다.

김해지역을 本貫으로 하는 姓氏로는 김해의 시조인 金首露王과 許皇后에서 비롯되는 金海金氏와 金海許氏를 시작으로 金寧金氏·金海宋氏·盆城裴氏 등이 있다. 또한 김해지역에 옛날부터 큰 집성촌[大姓]을 이루고 있는 성씨로는 昌寧曹氏·光州盧氏·盆城許氏·淸州宋氏가 있었다.<sup>35)</sup>

### 3) 지명유래(외동, 흥동)

#### (1) 외동

외동은 본래 김해군 우부면 지역으로 居仁里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조치에 의해 鳳谷里를 통합하여 김해면 외동리가 되었다. 1918년 우부면과 좌부면이 통합되어 김해면에 속하게 되었고, 1931년 김해면이 읍으로 승격되면서 김해읍 외동리가 되었으며, 1947년 里가 洞 으로 바뀌면서 김해읍 외동리가 되었

35) 이 외에 『新增東國輿地勝覽』을 비롯하여 『輿地圖書』 등의 문헌에도 김해지역의 姓氏들이 기록되어 있다.

다. 1981년에 김해읍이 市로 승격됨에 따라 김해시 외동이 되었다.

외동리는 내동리와 짝이 되는 지명이다. 외동리의 ‘外’는 안팎의 ‘밖’을, ‘洞’은 마을을 뜻하는 우리말 ‘골’을 표기하기 위한 借字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外洞’은 ‘밖골’을 차자 표기한 것이고, 외동리는 外洞에 ‘里’를 붙여 말단 행정구역단위의 하나라는 사실을 표기한 것으로 ‘밖 쪽에 형성된 마을’을 뜻하는데 거인리의 바깥에 있는 마을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름이 붙여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하였던 봉곡리는 『호구총수』 이후 외동리에서 분할되어 나왔다가 다시 외곡리에 통합된 것으로 보인다. 봉곡리의 鳳은 동쪽에 있는 산·들·마을 등을 뜻하는 ‘술~스르’의 변이형태 ‘새’를, ‘谷’은 골짜기를 뜻하는 ‘골’을 표기하기 위한 차자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鳳’의 훈이 ‘새’이고, ‘谷’의 훈이 골짜기를 뜻하는 ‘골’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차자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봉곡리는 ‘새골말’을 차자표기한 것이고 ‘里’를 붙여 말단행정구역단위의 하나라는 사실을 표기한 것으로 ‘동쪽 골짜기에 형성된 마을’을 뜻한다. 임호산의 동쪽 골짜기에 형성된 마을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름이 붙여졌다.

전해지는 마을 이름으로는 <무점>·<삼자골>·<연지>·<경원>·<임호>등이 있으며, 산 이름으로 <거북산>·<임호산>·<함박산> 등이 전해진다. <임호산>은 외동 남쪽에 있는 산으로 『김해지리지』를 보면 ‘流民山·加助山·虎邱山·安民山·鳳鳴山·任於山·惡山 등 여러 가지 별칭이 있다. 대부분 호랑이 형상 같다고 林虎山이라고 부르며 호랑이의 벌린 입이 너무 險惡하여 惡山이라고도 부른다. 駕洛國 때 長遊和尚이 호랑이의 입이 되는 곳에 절을 세워 百姓을 平安하게 하였다고 安民山이라고도 부른다. 전설에는 駕洛國 9代 鉗知王 때 如意娘子와 정혼한 黃洗將軍을 왕이 流民公主의 駙馬로 삼자 여의는 禍患의 고민 끝에 죽고 황세 또한 여의를 그리다가 죽어버렸다. 유민공주도 경운도사를 따라서 임어산에 들어가 입산수도했으므로 산 이름을 유민산이라 불렀다고 한다. 이 외에, <굴방우>·<화티바우>라 불리는 바위가 위치해 있으며, <선지고개>·<외동고개>등의 고개이름이 전해져 온다.

## (2) 흥동

흥동은 본래 김해시 우부면에 속해 있었다. 마을이 興盛하라고 하여 흥동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조치에 의해 칠산면 화목리 일부를 병합하여 김해면 흥동리가 되었다. 1918년 우부면과 좌부면이 통합되어 김해면에 속하게 되었다. 1931년 11월 김해면이 읍으로 승격됨에 따라 김해읍 흥동리가 되었으며, 1947년 리가 동으로 바뀌어 김해읍 興洞이 되었다. 1981년 김해읍이 市로 승격되자 행정동인 서부동이 설치되어 이에 속해 있었는데, 1998년 행정동인 칠산동과 서부동이 통합되어 칠산서부동이 되자 이에 속하게 되었다. 흥동은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에는 興洞里로 등장하고, 『호구총수』에는 興府院里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호구총수』 이후에는 興府院里라는 기록이 등장하지 않는데, 이는

『호구총수』 이후 어느 때인가 興洞里로 개칭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흥부원은 興福院에서 변이된 음가를 흥부원으로 借字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흥복원은 『慶尙道續撰地理志』에 등장하는데, ‘김해도호부서쪽 城中里에 흥복원이 있다’ 고 하였다.<sup>36)</sup> 성중리는 흥부원리, 회현리와 함께 기록되어져 있는데 당시에 모두 우부면에 속해 있었다. 흥복원이라는 이름이 없어지고 희미해지면서 흥부원으로 와전되어 불리다가 흥부원리라는 지명이 생겨나 성중리에서 분리되고, 흥부원리 등이 성중리를 통합하면서 다시 흥동리로 개칭되었다가 흥동이라는 지명으로 정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전해지는 마을 이름으로는 <덕정> · <신흥> · <유천> · <평리> 등이 있으며, <무점고개>라는 고개이름과 <곰바우>라는 바위이름이 전해진다. <곰바우>는 함박산 봉우리에 있는 바위인데 서로 얽혀 구멍이 있다는 데서 유래한 이름이다. 이 외에 어서각 안에 있는 <현충사>라는 서원과, <유천> 뒤에 있는 <흥본재>라는 재실 이름 등이 전해져 내려온다.

#### IV. 종합고찰 및 조사단 의견

이상으로 ‘김해시 임호도시자연공원 조성부지’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를 문헌적, 고고학적 자료를 통하여 검토하였다. 조사내용을 요약하여 조사단의 의견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지역은 경상남도 김해시 흥동, 외동 일원으로, 임호산 남쪽자락에 남해고속도로가 동서로 가로지르고, 남북으로 부산 강서구 강동동과 김해 부원동이 접하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서김해 I.C가 인접해 있다.

2. 지표조사 결과, 근·현대의 연고묘와 혼재되어 다수의 분묘가 확인되었다. 이들 분묘는 연고묘와는 달리 잔존상태가 좋지 못하며 일부는 등산로에 의해 이미 일부 부분 파괴된 상태여서 정확한 시기 판단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경질토기편 및 자기편이 소량 수습된 흥동 구릉부 일대의 임호산 유물산포지는 삼국~조선시대 생활 유적이 분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 조사대상지역에서는 별다른 매장문화재의 징후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3. 노거수 3기와 제실, 흥부암, 연고분묘 등은 공사시행 이전에 당사자간 적절한 이전 협의가 필요하며, 이전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조성될 공원과 조화로운 보존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문화재자료 제30호인 선조 어서각은 문화재보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 형상변경 심의 결과에 따라 처리되어야

36) 『慶尙道續撰地理志』 <金海, 院宇> 府西 城中里興福院.

할 것으로 사료된다.

4. 그 외 시기불명인 임호산 분묘군은 조사단과 협의하여 대표적인 분묘군 4기에 대한 표본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조선시대 및 그 이전의 분묘군으로 밝혀질 경우 전체 구역에 대한 발굴조사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임호산 유물산포지는 유물이 소량 수습되었기 때문에 표본시굴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문화재 보존 대책 및 공사시행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상기의 학술조사 대상지역은 조사 이전에는 원형이 보존되어야 할 것이며, 표본시굴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발굴조사 등의 계획변경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표 2] 지점별 GPS좌표

유구명	GPS 좌표	위 치	조 사	조사대상 면적	비 고																		
임호산 묘역군	분묘 1호	함박산에서 임호산으로 가는 주능선상		분묘군 1 내 분묘	잔존직경 약 500cm, 잔존고 약 80cm, 축대 잔존																		
	분묘군 1				186808 191963	표본시굴조사 필요	잔존봉분 직경3m내 외의 분묘 20~30여 기 분포. 비석·축대 등의 부수시설은 없 다. 등산로 양옆으로 분포하고 있다.																
					186655 191963																		
	분묘 2호				186618 191921			표본시굴조사 필요	잔존봉분 직경3m내 외의 분묘 20~30여 기 분포. 비석·축대 등의 부수시설은 없 다. 등산로 양옆으로 분포하고 있다.														
	186611 191920																						
	분묘 3호				186632 191911					표본시굴조사 필요	잔존봉분 직경3m내 외의 분묘 20~30여 기 분포. 비석·축대 등의 부수시설은 없 다. 등산로 양옆으로 분포하고 있다.												
	186642 191911																						
	분묘 4호				186488 191894							표본시굴조사 필요	잔존봉분 직경3m내 외의 분묘 20~30여 기 분포. 비석·축대 등의 부수시설은 없 다. 등산로 양옆으로 분포하고 있다.										
	186341 191982																						
	분묘 5호				186351 191974									표본시굴조사 필요	잔존봉분 직경3m내 외의 분묘 20~30여 기 분포. 비석·축대 등의 부수시설은 없 다. 등산로 양옆으로 분포하고 있다.								
	186341 191982																						
	분묘 6호				186351 191974											표본시굴조사 필요	잔존봉분 직경3m내 외의 분묘 20~30여 기 분포. 비석·축대 등의 부수시설은 없 다. 등산로 양옆으로 분포하고 있다.						
	186351 191974																						
	분묘 7호				186353 191984													표본시굴조사 필요	잔존봉분 직경3m내 외의 분묘 20~30여 기 분포. 비석·축대 등의 부수시설은 없 다. 등산로 양옆으로 분포하고 있다.				
	186353 191984																						
	분묘 8호				186841 191544															표본시굴조사 필요	잔존봉분 직경3m내 외의 분묘 20~30여 기 분포. 비석·축대 등의 부수시설은 없 다. 등산로 양옆으로 분포하고 있다.		
	186841 191544																						
	분묘 9호				187044 191960																	표본시굴조사 필요	잔존봉분 직경3m내 외의 분묘 20~30여 기 분포. 비석·축대 등의 부수시설은 없 다. 등산로 양옆으로 분포하고 있다.
	187044 191960																						
	분묘 10호				187099 191957																		
187099 191957																							
분묘 11호	187251 191867	표본시굴조사 필요	잔존봉분 직경3m내 외의 분묘 20~30여 기 분포. 비석·축대 등의 부수시설은 없 다. 등산로 양옆으로 분포하고 있다.																				
187251 191867																							
분묘 12호	187247 191870			표본시굴조사 필요	잔존봉분 직경3m내 외의 분묘 20~30여 기 분포. 비석·축대 등의 부수시설은 없 다. 등산로 양옆으로 분포하고 있다.																		
187247 191870																							
분묘 13호	187301 191805					표본시굴조사 필요	잔존봉분 직경3m내 외의 분묘 20~30여 기 분포. 비석·축대 등의 부수시설은 없 다. 등산로 양옆으로 분포하고 있다.																
187301 191805																							
분묘 14호	187318 191817							표본시굴조사 필요	잔존봉분 직경3m내 외의 분묘 20~30여 기 분포. 비석·축대 등의 부수시설은 없 다. 등산로 양옆으로 분포하고 있다.														
187318 191817																							
분묘 15호	187461 191697									표본시굴조사 필요	잔존봉분 직경3m내 외의 분묘 20~30여 기 분포. 비석·축대 등의 부수시설은 없 다. 등산로 양옆으로 분포하고 있다.												
187461 191697																							
분묘 16호												표본시굴조사 필요	잔존봉분 직경3m내 외의 분묘 20~30여 기 분포. 비석·축대 등의 부수시설은 없 다. 등산로 양옆으로 분포하고 있다.										
분묘 17호														표본시굴조사 필요	잔존봉분 직경3m내 외의 분묘 20~30여 기 분포. 비석·축대 등의 부수시설은 없 다. 등산로 양옆으로 분포하고 있다.								
분묘 18호																표본시굴조사 필요	잔존봉분 직경3m내 외의 분묘 20~30여 기 분포. 비석·축대 등의 부수시설은 없 다. 등산로 양옆으로 분포하고 있다.						
분묘 19호																		표본시굴조사 필요	잔존봉분 직경3m내 외의 분묘 20~30여 기 분포. 비석·축대 등의 부수시설은 없 다. 등산로 양옆으로 분포하고 있다.				
분묘 20호																				표본시굴조사 필요	잔존봉분 직경3m내 외의 분묘 20~30여 기 분포. 비석·축대 등의 부수시설은 없 다. 등산로 양옆으로 분포하고 있다.		

임호산면묘묘군	분묘 21호	187460 191714		표본시굴조사 필요		잔존직경 약 150cm, 잔존고 약 70cm
	분묘 22호 외 3기	187492 191718				
	분묘 23호 외 2기	187521 191746				잔존직경 약 300cm, 잔존고 약 70cm
	분묘24, 25호 외2기	187777 191838				
성균관 진사 밀양박 공 묘 외 2기	186488 192894	조사대상지역 북서쪽 한신자연유치원 북쪽	이장조치			1983년 4월6일 묘비를 새로 세움
임호산 유물산포지	187117 191526	조사대상지역 중앙부 남쪽 구릉말단부	표본시굴조사 필요	9,720㎡		경질토기편 및 자기편 수습
星州都氏 제실(興本齋)	186841 191544	조사대상지역 중앙부 남쪽 흥동1동	.			흥담 축대에 瓦積(조선후기 기와)
흥동 노거수	186934 191443		.			
덧바위	186428 191571	조사대상지역 남서쪽	.			
외동 보호수	188062 192262	외동 1144번지	.			
흥부암	188127 191900	임호산 동쪽 구릉 해발 100m선상	.			
선조 어서각	187312 191446	조사대상지역 중앙부 남쪽 구릉말단부	문화재 형상변경심의 결과에 따라 처리			문화재자료 제30호

※ □는 표본시굴조사 및 문화재 형상변경 심의 필요

## 【참고문헌】

『廣開土王碑(文)』  
『三國史記』  
『三國遺事』  
『高麗史』  
『世宗實錄』 <地理志>  
『新增東國輿地勝覽』  
『東國通鑑』  
『輿地圖書』  
『燃藜室記述』  
『海東釋史』  
『慶尙道邑誌』  
『大東地志』  
『增補文獻備考』  
『嶠南誌』  
『三國志』 <魏書> 東夷傳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韓國民俗大觀 1, 2, 3』, 1981.  
潘鏞夫·金元經, 『가야문화연구』, 1991.  
韓國文化院聯合會 慶尙南道支部, 『慶尙南道民俗集』, 199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1.  
金海文化院, 『古文獻 金海史料集 1, 2, 3』, 1991~1993.  
김태식, 『加耶聯盟史』, 一潮閣, 1993.  
권상노, 『韓國地名沿革辭典』, 이화문화출판사, 1994.  
田溶新, 『韓國古地名辭典』,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995.  
韓國古代史研究會 편, 『三韓의 社會와 文化』, 신서원, 1995.  
東亞大學校博物館, 『金海德山里民墓群』, 1995.  
金海文化院, 『增補 金海地理志』, 1996.  
경남대학교 경남지역문제연구원 편, 『경상남도 연구』, 1997.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편, 『加耶關係文獻考』, 1998.  
金海市·東亞大學校博物館, 『文化遺蹟分布地圖- 金海市』, 1998.  
金海文化院, 『金海金石文總覽』, 金海市, 1999.  
안장현·이상해, 『書院』, 열화당, 199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慶尙南道の 郷土文化-(上)·(下)』, 1999.  
慶星大學校 博物館, 『金海 龜旨路 古墳群』, 2000.  
김태식, 『미완의 문명 7백년 가야사』, 푸른역사, 2002.

國史編纂委員會, 『韓國史1- 총설』, 2002.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8- 경남편 I』, 2003.

慶南文化財研究院, 『金海 農所里遺蹟』, 2004.

閔肯基, 『金海의 地名』, 金海文化院, 2005.

# 圖 版





도판 1. 조사대상지역 전경(북→남)



도판 2. 임호산 분묘군내 분묘2(남서→북동)



도판 3. 임호산 분묘군내 분묘8(서→동)



도판 4. 임호산 분묘군내 분묘16(남→북)



도판 5. 임호산 분묘군내 분묘21(서→동)



도판 6. 임호산 유물산포지 전경(남동→북서)



도판 7. 임호산 유물산포지 내 지표수습유물



도판 8. 星州都氏 제실 전경(興本齋)



도판 9. 星州都氏 제실 앞 瓦積 전경 및 세부



도판 10. 외동 보호수



도판 11. 흥부암 전경(남동→북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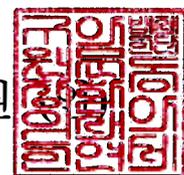
도판 12. 선조 어서각전경(남→북)

##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서

<b>사업 내용</b>	사업명	김해시 임호도시자연공원 부지내 문화재 지표조사			사업 기간	<b>2007.09.01 ~ 2007.10.30</b>				
	사업지역	경남 김해시 외동, 흥동 일원								
	면적	전체사업면적	<b>852,660㎡</b>	지표조사면적	<b>852,660㎡</b>					
	사업시행자	원발주기관	김해시청			지표조사 의뢰기관	기관명:재)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전화번호:055)265-9150~3			
<b>지표 조사</b>	조사기관	고고·역사 분야		책임조사원	정우열, 배덕환	조사원· 조사보조원	김관석, 김묘석, 심종훈, 이상용, 김민수			
		민속분야		책임조사원		조사원· 조사보조원				
		수중분야		책임조사원		조사원· 조사보조원				
		고건축분야		책임조사원		조사원· 조사보조원				
		자연문화재		책임조사원		조사원· 조사보조원				
	조사기간	<b>2007. 09. 01 ~ 2007. 10. 30</b>								
조사비용 <small>*계약금액기준</small>	고고·역사 분야	<b>8,800,000원</b>	민속 분야	원	수중 분야	원	고건축 분야	원	원	
<b>조사 결과</b>	주변문화재 조사결과	지정문화재	사적 : 제2호 봉황동 유적, 제66호 분산성, 제73호 수로왕릉, 제74호 수로왕비릉, 제75호 구산동 고분군, 제341호 대성동고분군 및 전시관부지 도지정 유형문화재 : 제217호 김해향교 도지정 기념물 : 제97호 내동 고인돌, 제98호 칠산동 고분군							
		비지정문화재								
	사업부지내 문화재 조사결과	지상문화재	도지정 문화재자료 : 제30호 선조 어서각							
		매장문화재								
건축물										
	민속자료									
<b>조사기관 종합 의견</b>	<p>조사대상지역은 경상남도 김해시 외동, 흥동 일원으로, 임호산·함박산줄기에 해당한다.</p> <p>지표조사 결과, 근·현대의 연고묘와 혼재되어 다수의 분묘가 확인되었다. 이들 분묘는 연고묘와는 달리 잔존상태가 좋지 못하며 일부는 등산로에 의해 이미 일부 파괴된 상태이다. 따라서 이들 분묘분포지역은 우선적으로 각 지점의 대표적인 분묘 4기에 대해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그 성격 및 시기를 규명한 후 발굴조사 진행 및 공사시행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경질토기편 및 자기편이 수습된 흥동 구릉부는 삼국~조선시대 생활유적이 분포할 가능성이 높아 표본시굴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그 외 조사대상지역에서는 별다른 매장문화재의 징후를 발견하지 못하였다.</p> <p>노거수 3기와 제실, 흥부암 등은 공사구역에 포함될 경우 적절한 이전 대책이 필요하며, 이전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조화로운 보존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문화재자료 제30호인 선조 어서각은 문화재보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형상변경 심의 결과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p>									
<b>기타 특이사항</b>										

**2007년 10월 23일**

지표조사기관명 :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財)東亞細亞文化財研究院 地表調査報告 第82輯  
김해시 임호도시자연공원 부지내

## 文化遺蹟 地表調査 報告書

인쇄일 / 2007년 10월 23일

발행일 / 2007년 10월 24일

編輯·發行 / 財團 東亞細亞文化財研究院  
法人

630-810 경남 마산시 양덕동 96-20  
동문빌딩

TEL : (055) 265-9150~2

FAX : (055) 265-9154

E-mail : [feaci03@hanmail.net](mailto:feaci03@hanmail.net)

인쇄처 / 부광사

641-824 경남 창원시 사림동 11-1

TEL : (055) 285-1834